

# 순천시, 소형경전철 '스카이큐브' 인수개통식 개최



순천시는 26일 순천만국가정원 스카이큐브 정원에서 스카이큐브 인수개통식을 개최하고,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 6년만에 문학관역 친환경 갈대열차 운행도 시작 통합권 구입시 일반인 기준 14000원에 이용 가능

이날 행사에는 허석 순천시장, 신택호 시민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순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위탁사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했다. 인수개통식은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순천시의 경과보고와 테이프 커팅에 이어 정원에서 문학관역까지 스카이큐브 타고 이동하는 시승 행사가 이어졌다.

문학관역에서는 친환경 갈대열차의 운행도 시작했다. 갈대열차는 운행이 중단된 지 6년여 만에 기존에 경유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변경하여 문학관역에서 순천만습지 입구까지 갈대 탐방로 구간을 왕복 운행 했다. 행사가 끝나고 1시부터는 일반입장객이 탑승이 시작되었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국가정원이나

순천만습지 입구 매표소에서 통합권을 구입할 경우, 국가정원, 습지, 스카이큐브 모두를 일반인 기준 14,000원, 순천시민의 경우 6,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순천시민인 6세까지 유아의 경우 무료로 스카이큐브를 탑승할 수 있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스카이큐브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면서 "스카이큐브가 이제는 우리 시민의 것인 만큼 위탁운영사, 시민과 함께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양시,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광양시가 4월 1일~5월 31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직불금은 2020년부터 통합 개편돼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과 환경보전, 농촌유지 기능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3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2016~2020년 쌀·밭·조건불리·기본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기존 수혜 농업인과 2018~2020년 중 기본직불금 대상농지 1천㎡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중 한 가지만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직불금 120만 원 미만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신청자 2,000만 원 미만 △가구합산 4,500만 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ha)를 적용한다. 기본직불금 신청 시 '실제 경작하는 농지면적만 신청하기', '폐경면적 및 미관리 농지 제외하기', '변경된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하기' 등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고 허위등록(본인 미경작, 전체 폐경 필지) 시에는 직불금 전액 환수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해야 한다. 광양시는 신청·접수(4~5월), 등록증 교부 및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6월),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검증(7~9월) 등을 거쳐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양=심종섭기자

## 여수시, 음식 덜어먹기 확대 "안전한 외식문화조성 이끈다"

관광지 주변 등 일반음식점 170개소에 1인 찬기·집게 보급

여수시가 안전하고 청결한 외식문화 조성 및 식중독예방을 위해 음식 덜어먹기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에 취약한 외식문화를 개선 생활방역 중심의 안전한 외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5200만 원을 들여 관광지 주변 등 일반음식점 170개소에 1인 찬기와 집게를 보급해 음식 덜어먹기 생활화에 나선다.

보급과 함께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여수시 위생단체협의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음식문화개선 홍보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해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 160개소에 1인찬기와 집게 등을 보급해 음식점 및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 경영난과 음식점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수=오상호기자

## 보성녹차, 7년 연속 '2021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대한민국 대표 지역 특산품 지역 경제 발전 크게 기여

보성녹차가 7년 연속으로 '2021 대한민국 명가·명품대상' 지역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으로 지난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보성녹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축산물분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되어 차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공인받았으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12년 연속 미국(USDA), 유럽(EU), 일본(JAS) 등 국제 유기인증을 획득하며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녹차수도 보성군은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이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데 이어 현재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보성차 알리기에 힘쓰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차산업과 차문화

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2022년에 10주년을 맞이하는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국제행사 규모로 준비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성=김덕순기자

## 순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 설계용역 착수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47,000㎡...내년 착공 2025년 완공

순천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허석 순천시장의 주재로 중앙대 최윤경 교수, 순천대 송성욱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설계용역업체로부터 용역 추진 일정과 설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순천시 신청사는 현청사 부지를 동

쪽으로 확장하여 연면적 47,000㎡,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따라서 신청사 외부에 중앙공원을 비롯해 6개의 중정과 내부에는 북카페, 다목적 강당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행정업무 처리하는 사무공간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기자

##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비 5084만원의 예산을 확보 유해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철선울타리와 메쉬웬스, 방조망,

경유기 등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흥군에 농경지를 둔 농업인 중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 동물로부터 경작지에 피해를 받았거나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가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말까지 시설 설치 농경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농가,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설치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고흥=김택영기자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